

# “밝아진 세상 보니 기뻐”...보성군 백내장 수술 지원 인기

6년간 1078명·4억2458만원 지원  
올 예산 소진...4000만원 추가 편성  
안질환 조기 발견 등 군민들 큰 호응

“책 볼때도 물론이고 집에서 안경 안쓰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보이고 나쁘게 좋아요. 지인으로부터 군에서 의료비 지원한다는 이야기 듣고서 신중해 훨씬 쉽게 수술받을 수 있었죠. 군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러한 군의 치료비 지원을 친구나 주위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야겠어요.”  
보성군 득량면의 강계임(80) 어르신은 지난 2월 보성군의 의료비 지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밝아진 세상’에 대한 기쁨과 군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보성군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이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년간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 1078명에게 총 4억2458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어르신은 시행 첫해 84명에서 올해(10월 말 현재) 297명으로 무려 3.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액 1억2000만원이 이미 소진돼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할 정도이다.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의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 실명 예방과 시력 보호를 위한 민선 7·8기의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희망자는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 및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지원액은 1인당 한 쪽의 수술 때 최대 25만원이다.  
이같이 의료비 지원 정책이 호응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확고한 데다, 지역민들의 좋은 반응이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은 지역민의 호응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낮춤으로써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주효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의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이 6년간 1000여명에 4억2천여만원에 달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군 민이 안과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 순천시, 친환경 선박산업 새 장 연다

울촌산단서 한화오션에코텍 착공식  
3000억 투자...고용창출 530명 전망

순천시가 14일 한화오션에코텍(주) ‘친환경 선박 전문화 공장 착공식’을 순천 울촌제1산단 사업부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오션에코텍 이창근 대표이사를 비롯해 노관규 순천시장·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주)의 자회사인 한화오션에코텍(주)은 선박 블록 및 핵심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울촌1산단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선박 핵심부품 생산 전진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사업 추진을 위해 한화오션에코텍(주)은 지난 3월 상상인선박기계와 상상인인더스트리 부지 및 자산을 인수하고, 5월17일 순천시와 투자액 3,000억원, 고용인원 530명(협력사 포함)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순천시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울촌제1산단에 동지를 틀기 시작해 대기업들의 유망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착공식에 참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업이 함께 가는 길에 늘 순천시가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뿌리

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여건, 복지 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순천시 주도적 기업진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역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수출기업 직접지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추진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순천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순천시는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 1조 3천억 원, 1,6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했고, 향후 더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 신규 미래산단 개발 등 투자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흥 유자축제’ 진한 향기로 전국 강타

17만 3000여명 방문 ‘대성황’  
체류형 축제 전환 성공적 평가

고흥군이 주최한 제4회 고흥유자축제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11월! 고흥은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축제는 유자를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로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유자의 향, 색, 맛, 소리, 감각을 주제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식나눔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유자 테마파크는 거대한 유자 조형물과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축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신나는 농악과 대형 유자 조형물과 함께 유자를 형상화한 다채로운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축제장을 행진하며 펼친 유자 퍼레이드는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고흥유자축제가 지난 10일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흥군 제공>

또한, 축제 기간 유자 막걸리와 삼겹살을 결합한 막삼파티, 유자라면, 유자 굿즈 등 다양한 유자 파생상품이 선보이며 유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형 유자 모형의 설치 미술을 통해 축제의 격을 높였고, 유자밭 힐링 공간과 유자스파 등 단순한 무대 공연 축제에서 벗어나 건강기능 축제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간 축제에서 야간 축제로의 확대,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꾀하며 낮에는 유자 향 가득한 축제장을, 밤에는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과 대형 유자 별문으로 장식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유자밭을 화려하게 수놓은 포토존과 야간경관을 12만 평에 조성한 ‘유유자적 유자탐방로’에서는 황금빛 유자와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축제 대미로 고흥의 3대 전략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스토리 형식으로 연출한 드론쇼는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고흥군이 정성껏 준비한 ‘집밥’ 같은 향토음식은 저렴한 가격과 더할 나위 없는 맛으로 축제 기간 내 연일 재료가 소진되는 등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돈이 되는 축제를 지향하여 개설한 유자 생과와 유자 가공 제품 판매장, 한우직판장 등은 ‘고흥 세일’을 프로모션을 통해 연일 완판되는 매장이 속출하며, 이를 통해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축제는 17만 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흥 유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특산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제4회 고흥유자축제가 역대급 성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흥유자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광양시 우리음식연구회, 독거노인 100명에 ‘반찬 나눔’ 재능기부

광양시 우리음식연구회가 지난 12일 독거노인 100명에게 반찬 나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우리음식연구회의 회원 12명은 이날 소고기 미역국·계란장조림·멸치볶음·깍두기 등 반찬 4종 세트를 정성껏 만들어 시에 기증했다. 기증된 반찬은 광양시 노인장애인복지회 생활지원사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100명에게 전달됐다.  
김정례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만든 반찬을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음식연구회는 1996년 창립된 농업인 학습단체다. 향토음식 보존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조리 기술을 보급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반찬 나눔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